

CONTENTS

1. 주간 펀드 현황

- (1) 국내펀드시황
- (2) 해외펀드시황

2. 유형별 운용사 수익률

- (1) 주식형
- (2) 채권형

3. 주요 펀드 뉴스

[국내펀드 주간시황]

국내주식형펀드 4주만에 상승 전환

[해외펀드 주간시황]

3차 양적 완화 개시로 해외펀드 성과 양호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1. 주간 펀드시황 - 국내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4주만에 상승으로 전환

국내주식형 펀드가 4주만에 부진을 떨치고 3%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형펀드 소유형 모두 2%~4%대의 성과를 보였다. 설정액은 4,000억원정도 줄었지만 순자산액은 증시상승분이 더해져 1조5천원 넘게 늘었다.

국내주식형펀드
3.57%

K200인덱스펀드
4.12% 가장 우수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14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펀드(테마, 기타인덱스 제외)는 한 주간 3.57% 상승했다. 美 경기부양 기대감에 국내증시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한주간 3.69% 상승했다. K200 지수가 4.08% 오르면서 이를 추종하는 K200인덱스펀드 4.12% 수익률로 국내주식형펀드 소유형 중 가장 우수했다. 대형주 상승폭이 크면서 대형주 투자비중이 높은 일반주식펀드가 3.42%, 배당주식펀드가 3.47%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률을 밀론 성과를 냈다. 지난 4주 연속 소유형 중 주간 성과 상위를 달린 중소형주식펀드가 2.52%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 상승에 혼합형 펀드들도 선전했다. 일반주식펀드가 1.79%, 일반채권혼합펀드가 1.04%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중 시장중립형 펀드가 0.25%, 채권알파와 공모주하이일드형 펀드는 0.05%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주일	1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1,368	378,772	3.42	1.70	2.22	3.51
	중소형주식	79	13,880	2.52	7.08	1.80	6.36
	배당주식	105	15,671	3.47	3.26	4.78	5.23
	K200인덱스	208	116,711	4.12	0.03	10.69	7.40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25	20,511	1.79	0.64	3.20	3.35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352	41,318	1.04	0.99	4.14	3.77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4	7,248	0.05	0.23	3.00	2.41
	시장중립	42	1,557	0.25	0.74	0.69	1.66
	공모주하이일드	19	1,159	0.05	0.35	3.82	2.94
KOSPI				3.69	0.94	7.60	6.84
KOSDAQ				2.72	8.80	10.52	4.06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486개 펀드 모두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률을 웃돈 펀드는 66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증시 상승에 레버리지인덱스펀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코스닥 및 코스피중형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형주식펀드가 하위권에 자리했다.

레버리지인덱스펀드
강세

이번주 국내주식형 최상위 성과 펀드는 9.40% 수익률을 낸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종류A'펀드이다. ETF와 선물을 이용해 K200지수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로 증시 상승 효과를 크게 받으며 최상위에 자리했다.

'한화2.2배레버리지
인덱스[주식-파생
재간접]종류A'펀드
9.40% 최상위권

이 외에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펀드 및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펀드가 8% 넘는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우량 코스닥으로 구성된 K-STAR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펀드가 1.19% 수익률로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또한 우량 코스닥종목에 투자하는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주식)'펀드도 1.50%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1. 주간 펀드시황 - 국내펀드

중소형주식펀드도 하위권에 자리해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 A'펀드 및 '동양중소형고배당 1(주식)ClassC' 펀드가 각각 1.57%, 1.88%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주일	1개월	연초후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종류A	116	기타인덱스	9.40	-1.39	9.71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239	기타인덱스	8.70	-1.06	10.54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553	기타인덱스	8.62	-0.78	10.93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14,053	기타인덱스	8.55	-1.14	9.85
한국투자KIN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164	기타인덱스	8.48	-0.83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1.5(주식-파생) C-A클래스	28	기타인덱스	6.55	-0.47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 [주식-파생]Class A	3,978	기타인덱스	6.36	-0.33	9.60
하나UBS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종류A	777	기타인덱스	6.36	-0.42	9.63
삼성KODEX건설상장지수[주식]	162	기타인덱스	6.04	4.00	-1.54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상장지수[주식]	102	기타인덱스	5.73	3.71	-2.29

주1) 1주일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충격여파로 국내채권펀드 마이너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채권시장에 충격을 줬다. 국내채권펀드는 한 주간 0.19% 손실을 기록했다.

국고채 1년물은 6bp 상승한 2.81%, 3년물은 12bp 상승한 2.87%, 5년물은 10bp 상승한 2.33%, 10년물은 8bp 상승한 3.07%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동결
채권펀드 -0.19%

중기물 하락폭이 크면서 중기채권펀드가 -0.28% 수익률로 국내채권형펀드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 하이일드채권펀드는 각각 -0.14%, -0.12%, -0.02%를 기록했다. 금리변화에 둔감한 초단기채권펀드만이 0.02%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

국고채 1년물 6bp상승
국고채 5년물 10bp상승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주일	1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110	13,764	-0.14	0.15	4.64	3.54
	초단기채권	8	8,078	0.02	0.21	3.57	2.55
	중기채권	70	36,685	-0.28	0.14	5.32	4.49
	우량채권	38	9,343	-0.12	0.15	4.20	3.41
	하이일드채권	19	839	-0.02	0.25	4.94	3.47
KIS채권지수(1년 종합)				0.01	0.21	3.92	2.85
MMF	MMF	146	708,452	0.06	0.26	3.32	2.30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 1. 주간 펀드시황 - 국내펀드

**‘메리츠힘찬국채플러스 1[채권]종류 A’펀드
0.66% 가장 높아**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25개 중 13개 펀드만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주에 이어 ‘메리츠힘찬국채플러스 1[채권]종류 A’펀드가 0.66%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듀레이션 7.42년의 장기채 펀드지만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대신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CD 금리를 받는 IRS Pay 계약을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스트스프링물가따라잡기자[채권]클래스C-F’ 펀드 및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채권)’펀드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듀레이션 7.18년의 장기채펀드인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펀드가 -0.50% 수익률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KB장기주택마련 1(채권)’펀드 및 ‘미래에셋중장기자[채권]종류 C-1’펀드가 -0.35% 성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채권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주일	1개월	연초후
메리츠힘찬국채플러스 1[채권]종류 A	205	우량채권	0.66	1.02	
이스트스프링물가따라잡기자[채권]클래스C-F	23	중기채권	0.11	0.01	1.75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채권)	1,873	초단기채권	0.05	0.23	
하나UBS 4[어음]	236	초단기채권	0.05	0.24	2.45
삼성KODEX 단기채권상장지수[채권]	4,220	초단기채권	0.02	0.21	
우리KOSEF 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1,060	초단기채권	0.01	0.19	2.63
동양분리파세고수익고위험 D 1- 1(채권)Class C- 1	182	하이일드채권	-0.00	0.26	3.63
동양분리파세고수익고위험 D 2- 1(채권)Class C- 1	112	하이일드채권	-0.01	0.27	3.68
신한BNPP BEST CHOICE단기 4[채권](종류C)	243	일반채권	-0.02	0.18	2.55
현대베스트월지급식 1[채권]C-W	26	일반채권	-0.04	0.23	3.86

주1) 1주일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국내주식형(ETF제외)
순자산 1조 5,175억원 증가**

14일 현재,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으로 펀드자금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 주간 1조 6,035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했다. MMF의 설정액이 1조 2,132억원 큰 폭으로 줄어 전체 설정액 감소를 가져왔다.

국내주식형(ETF 제외)은 3,837억원의 설정액이 줄었지만 증시 상승으로 순자산액은 1조 5,175억원 늘었다.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 설정액은 각각 76억원, 50억원 감소했다.



1. 주간 펀드시황 - 국내펀드

국내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개, 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액		
		'12.09.07	'12.09.14	증감	'12.09.07	'12.09.14	증감
주식형	2,449	622,663	618,826	-3,837	560,828	576,003	15,175
주식형 ETF	94	71,308	70,567	-741	106,247	108,420	2,173
주식혼합형	308	33,371	33,294	-76	31,997	32,569	572
채권혼합형	514	48,060	48,010	-50	48,597	49,049	452
채권형	289	69,137	69,436	298	70,744	70,910	166
채권형 ETF	11	13,804	14,018	213	14,249	14,436	187
절대수익추구형	244	10,016	10,005	-11	10,182	10,179	-3
부동산형	14	9,459	9,459	0	8,412	8,412	0
MMF	167	713,334	701,202	-12,132	725,498	713,508	-11,990
기타	599	33,313	33,615	301	30,122	31,161	1,039
국내 소계	4,689	1,624,467	1,608,431	-16,035	1,606,877	1,614,648	7,772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유형내 ETF제외

[이은경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1. 주간 펀드시황 - 해외펀드

3차 양적 완화 개시로 해외펀드 성과 양호

해외주식형펀드
3.58% 상승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3주 만에 상승세로 복귀했다. 지역과 섹터별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해외주식형펀드 전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브릭스(BRICs) 등 신흥국증시가 선진국증시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올렸으며, 유럽과 미국 양방의 유동성 정책에 상품 가격이 급등하며 기초소재섹터펀드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9월 14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3.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주일	1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1,818	209,737	3.58	0.54	-4.48	5.22
	글로벌주식	81	5,413	2.46	2.60	8.00	9.03
	글로벌신흥국주식	283	43,551	3.37	0.10	-3.97	5.40
	북미주식	54	2,355	2.63	2.85	21.36	15.90
	남미신흥국주식	60	4,404	3.17	-0.44	-3.16	5.65
	유럽주식	51	1,540	3.34	2.81	20.14	15.68
	유럽신흥국주식	60	2,945	3.99	5.00	-0.54	16.56
	아시아태평양주식	37	1,206	3.39	0.25	0.85	4.98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77	12,106	2.80	1.62	2.18	8.26
	아시아신흥국주식	85	11,715	3.74	1.67	-7.31	6.11
	동남아주식	74	2,483	1.92	1.04	7.68	15.04
	프론티어마켓주식	25	175	1.67	3.34	8.47	13.81
	일본주식	62	1,660	3.29	0.21	2.58	3.86
	중국주식	454	97,366	3.63	-0.41	-6.50	3.39
	인도주식	73	4,413	4.10	2.32	-8.60	10.47
	브라질주식	47	2,350	3.27	-0.27	-9.85	-1.47
	러시아주식	43	4,761	5.74	5.75	-2.91	17.16
	에너지섹터	60	1,906	4.81	3.14	-6.56	-0.37
	기초소재섹터	49	5,150	7.42	3.60	-22.30	-6.69
	소비재섹터	15	332	0.81	1.30	15.71	14.85
	헬스케어섹터	7	90	1.16	2.41	26.83	19.58
	금융섹터	34	713	4.23	4.69	12.31	14.87
	멀티섹터	51	2,836	1.93	2.83	18.90	14.65
해외주식혼합형		87	19,563	0.99	0.75	-4.54	3.78
해외채권혼합형		113	2,771	1.11	0.64	2.34	5.29
해외부동산형		48	10,008	0.26	0.85	13.61	12.67
커머더티형		103	5,245	1.59	4.10	-4.11	12.03
해외채권형		174	45,297	0.95	1.48	9.60	10.4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해외주식형 지역권펀드 가운데는 러시아주식펀드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한 주간 5.74%의 수익률로 브릭스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섰다. 러시아증시는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며 최근 4개월



1. 주간 펀드시황 - 해외펀드

러시아주식펀드 5.74%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재정흑자 확대, ECB 회의, 미 FRB의 3차 양적완화(QE3) 기대,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 등으로 양호한 투자심리가 한 주 내내 유지되며 증시를 강세로 이끌었다. 중앙은행이 1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며 지수 상승폭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인도주식펀드 4.10%

인도주식펀드 수익률은 4.10% 상승하며 러시아주식펀드의 뒤를 이었다. 섀넥스지수는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증시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며 한 주 동안 강세를 유지했다. 전 종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해외 수요 증가 전망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주와 철강주 및 자동차주 등이 급등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중국주식펀드 3.63%

중국주식펀드도 수익률이 3.63% 올랐다.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 수익률도 3.74% 상승했다. 글로벌 유동성 정책 기대에 따른 매수심리가 개선된 것과 아울러, 중국 정부가 잇따른 교통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재정지출 확대 의지를 내비친 것이 직접적인 증시 상승의 원인이었다. 중국 정부가 한 주 동안 승인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총 60개로, 그 규모는 1조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주식펀드 3.27%

브라질주식펀드는 3.27%의 수익률로 플러스 성과를 내었지만, 브릭스국가 중에서 가장 저조했으며 해외주식형 평균을 0.31%포인트 하회했다. 브라질증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촉진 조치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및 해외수요 증가 기대로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 주 마지막 날의 3.5% 급등분은 시차 문제로 펀드 성과에 반영되지 못해 수익률이 다소 저조한 것처럼 나왔다.

유럽주식펀드 3.34%

선진국 시장인 유럽과 일본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펀드들은 각각 3.34%, 3.29% 그리고 북미주식펀드는 2.63%의 수익률로 신흥국주식펀드에 최대 2%포인트 이상 뒤쳐졌다.

일본주식펀드 3.29%

북미주식펀드 2.63%

기초소재섹터 7.42%

에너지섹터펀드 4.81%

섹터별로는 국제 상품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소재섹터펀드가 7.42%의 수익률을 기록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에너지섹터펀드와 금융섹터펀드도 각각 4.81%, 4.23% 상승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섹터에 투자하는 멀티섹터펀드도 1.93% 올랐다.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주일	1개월	연초후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H)(A)	2,126	기초소재섹터	9.25	2.68	-5.69
JP모간러시아자(주식)A	1,941	러시아주식	6.84	5.62	20.16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205	러시아주식	6.64	5.89	11.58
ING차이나BuII 1.5배 [주식-파생]종류C-e	25	중국주식	6.58	-5.32	-4.90
한화차이나H 스피드업1.5배자(주식-파생)종류A	160	중국주식	6.52	-4.95	-4.52
프랭클린템플턴내추럴리소스자[주식-재간접]Class A	154	에너지섹터	6.31	3.44	-0.75
슈로더이머징원자재자A(주식)종류A	99	글로벌신흥국주식	6.16	1.50	0.54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236	러시아주식	5.91	6.17	14.95
JP모간천연자원자(주식)A	1,426	기초소재섹터	5.86	3.73	-9.90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1(주식)(A)	181	금융섹터	5.75	8.28	22.05

주1) 1주일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072개(클래스 포함한 집계) 해

1. 주간 펀드시황 - 해외펀드

기초소재섹터펀드 및 러시아주식펀드 상위권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H)(A)’ 펀드 9.25% 주간 최상위

외주식형펀드 중 1,037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다양한 지역권펀드와 섹터펀드가 상위권에 자리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와 에너지섹터펀드, 러시아주식펀드 및 중국의 레버리지 펀드들이 포함되었다.

개별펀드별로 살펴보면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H)(A)’ 펀드가 9.25% 상승하며 주간수익률 최상위에 올랐다.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에 의한 수요 증대 예측과 통화 완화 정책에 의한 상품 가격 급등으로 관련 펀드 성과가 양호했다. ‘슈로더이머징원자재자A(주식)종류A’ 펀드와 ‘JP모간천연자원자(주식)A’ 펀드도 각각 6.16%, 5.86%의 성과로 뒤를 이었다.

뒤를 이은 것은 ‘JP모간러시아자(주식)A’ 펀드로 한 주간 6.84%의 수익률을 올렸다. 러시아증시 특성상 원유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다.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펀드와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펀드도 유사한 성과를 내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ING차이나Bull 1.5배[주식-파생]종류C-e’ 펀드, ‘한화차이나H 스피드업1.5배자(주식-파생)종류A’ 펀드 등 중국증시에서 레버리지 전략을 취하는 펀드와 ‘프랭클린템플턴내츄럴리소스자[주식-재간접]Class A’ 펀드 등 에너지섹터펀드도 주간성과가 양호했다.

반면, 소비재섹터펀드와 동남아 및 중동아프리카에 투자하는 펀드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펀드 자금동향

해외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개, 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액		
		'12.09.07	'12.09.14	증감	'12.09.07	'12.09.14	증감
해외주식형	2,050	285,447	284,611	-835	202,798	209,529	6,731
해외주식형 ETF	8	1,541	1,541	0	1,227	1,271	44
해외주식혼합형	107	26,834	26,760	-74	19,467	19,608	141
해외채권혼합형	129	2,838	2,837	-2	2,790	2,820	29
해외채권형	204	42,164	42,924	760	44,118	45,332	1,214
해외부동산형	55	11,885	11,872	-13	10,000	10,018	19
커머더티형	128	4,603	4,536	-68	4,084	4,074	-10
해외기타	63	6,570	6,559	-11	6,101	6,171	71
해외 소계	2,744	381,883	381,640	-243	290,586	298,825	8,239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주식형내 ETF제외, 역외펀드 제외

해외펀드 설정액 한 주간 243억원 감소

제로인 분류 기준으로 공모 해외펀드(역외펀드 제외) 설정액은 전주보다 243억원이 줄어든 38조 1,6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유형별로 설정액 증감을 살펴보면 해외주식형(ETF 제외)이 전주보다 835억원 감소했으나 해외채권형은 76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에서 289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했으며 중국주식펀드에서도 281억원 줄었다.

[박제영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 유형별 운용사 수익률(순자산 300억원 이상)

일반주식형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억원, %)

운용사명	순자산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칸서스운용	4,622	4.25	1.50	4.26	-7.46
키움운용	412	4.05	0.16	1.65	-6.41
하이운용	4,879	4.02	2.53	3.32	-6.39
HDC운용	329	4.01	1.39	4.44	-5.38
에셋플러스운용	877	4.01	6.67	12.05	2.00
한화운용	7,410	3.98	1.29	4.15	-5.70
GS자산운용	2,233	3.94	1.16	2.71	-6.94
마이더스운용	785	3.86	2.56	6.79	-1.41
NH-CA운용	4,304	3.84	1.71	4.45	-3.53
한국운용	40,594	3.82	0.01	2.43	-8.38
SEI에셋운용	1,317	3.82	3.76	5.88	-3.5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9,799	3.75	1.38	2.91	-7.61
동양운용	3,081	3.75	1.88	5.86	-5.84
플러스운용	531	3.70	3.56	5.76	-5.07
ING운용	2,516	3.70	1.97	3.38	-6.23
동부운용	2,340	3.68	2.91	5.06	-7.31
IBK운용	1,678	3.68	1.14	4.51	-3.31
하나UBS	21,183	3.66	0.34	2.13	-5.58
트러스트운용	8,092	3.63	3.15	8.37	-2.04
우리자산운용	3,395	3.61	1.63	2.93	-5.65
KTB운용	6,266	3.56	1.18	2.20	-6.36
유리운용	519	3.56	3.02	3.09	-9.93
알리안츠운용	16,155	3.56	3.11	3.94	-5.27
마이애셋	2,786	3.52	2.74	3.84	-2.69
피델리티운용	2,656	3.49	1.35	1.90	-7.04
신영운용	12,597	3.47	3.30	8.05	-2.27
삼성운용	31,078	3.46	2.64	4.18	-2.68
메리츠운용	591	3.44	1.20	4.13	-6.32
대신운용	719	3.37	2.08	2.96	-7.58
신한BNPP	18,077	3.36	1.61	4.52	-5.24
미래에셋자산	79,972	3.29	1.03	2.49	-6.32
현대자산운용	913	3.28	1.91	4.28	-4.53
프랭클린템플턴	5,936	3.20	-0.14	1.66	-8.76
교보약사운용	1,904	3.12	2.26	3.18	-8.21
골드만삭스운용	2,630	3.05	0.66	2.34	-7.06
제이피모간	15,454	3.01	1.57	3.20	-8.53
KB운용	46,739	2.96	2.69	6.53	-4.00
한국투자밸류자산	10,994	2.79	5.15	10.12	1.38
산은운용	932	2.79	0.35	1.31	-9.02
전체	378,772	3.42	1.70	3.99	-5.48

일반채권형

기준일 : 2012년09월14일

(단위: 억원, %)

운용사명	순자산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신한BNPP	308	-0.03	0.18	1.13	2.15
하나UBS	1,866	-0.11	0.12	1.11	2.09
삼성운용	362	-0.11	0.14	1.38	2.46
동양운용	2,260	-0.12	0.19	1.39	2.65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3,174	-0.13	0.17	1.86	3.09
한화운용	714	-0.14	0.14	1.47	2.77
하이운용	700	-0.16	0.16	1.86	3.12
한국운용	1,634	-0.17	0.10	1.65	2.88
미래에셋자산	532	-0.19	0.22	2.44	3.95
KB운용	570	-0.20	0.12	1.80	3.29
우리자산운용	382	-0.23	0.18	2.73	4.50
전체	13,764	-0.14	0.15	1.59	2.80



3. 주요 펀드뉴스

Fund News Brief

- 펀드 이름에 `이것` 들어가면 수익률 `대박` (중앙, 12/09/07)
- 채권형펀드 `전성시대`...4% 수익률 기대한다고? (머니투데이, 12/09/07)
- [분석] 브릭스펀드, 추락에도 날개가 있다? (news1, 12/09/12)
- 기관이 선택한 펀드 따라서 투자해 볼까 (한경, 12/09/10)
- “무슨일 있어도 본전만큼은...” 원금보장상품 인기 (헤럴드, 12/09/13)
- 올 수익률 최고 12%...CTA전략펀드 내 돈도 굴러볼까 (아시아경제, 12/09/11)
- [신혼 재테크] `펀드 투톱` 갖추면 행복도 두 배 (매일경제, 12/09/11)
- 32개 펀드 선택에 무더기 손배소...이미 환매했다면? (머니투데이, 12/09/10)
- "수익 더 올리자" 펀드상품 파생형 전환 잇달아 (서경, 12/09/11)
- 국내주식형 펀드, 자산운용사 따라 9% 넘게 수익률 차이 (아시아투데이, 12/09/12)
-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당국 칼 빼드나 (헤럴드, 12/09/07)
- 왕서방 덕에 ... 럭셔리펀드 수익률 `이름값` (중앙, 12/09/11)
- 자산운용사 中 QFII 투자한도 소진 `비상` (머니투데이, 12/09/12)
- 대박도 쪽박도 아닌 `중박펀드`가 뜬다 (문화일보, 12/09/13)
- 채권형펀드 하룻밤새 3조 유출 해프닝(이데일리, 12/09/07)
- 액티브 펀드 `수난시대`, 자산배분펀드는 어때? (머니투데이, 12/09/13)
- 금값 고공행진에 관련株·펀드 `웃음꽃` (서울파이낸스, 12/09/11)
- “액티브펀드 지고 자산배분형 펀드 뜬다” (파이낸셜 뉴스, 12/09/13)
- 금값 상승에 금펀드도 `활활` (이투데이, 12/09/13)
- 채권형펀드, 사흘만에 순유입 (파이낸셜뉴스, 12/09/12)